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9년도 표어 ⊗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 (마8:7)

⊗ 4대 실천강령 ⊗

- 1.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먼저 회개한다.
- 2. 고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서로 위로한다.
- 3.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친다.
- 4.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교회설립 제 8주년 · 추수감사절 행사

오늘 할렐루야찬양대 주관 감사찬양예배

오늘 찬양예배는 교회설립 8주년기념 및 '99 추수감사 찬양예배로 드린다.

찬양 순서는 할렐루야찬양대에서 맡아 '할렐루야' 를 주제로 이루어 진다. 연주 곡목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미하는 노래" 를 뜻하는 할렐루야를 제목으로 하거나 가사로 씌어진 곡들을 준비했다. 지휘는 이광석 선생, 반주는 조은주 집사가 맡았다.

이번 찬양예배는 오르가니스트 조은주 집사의 오르간 연주 '피난처 있으니' 로 막을 올린다.

이어 할렐루야찬양대에서 창립주일 찬양인 '하나님의 교회' (김두완 곡)를 필두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더 페이지 곡) '할렐루야 노래하라' (더들리 백 곡) '하나님을 찬양하라' (고든 영 곡) '시편150편' (루이 르완도프스키 곡) 등을 합창한다.

중간 독창에선 소프라노 최미현이 모짜르트의 '알렐루야' 를 부른다.

특히 후반 찬양 서두에서는 감사주일 찬양인 '자비의 아버지' (노먼 처칠 곡)를 찬양대와 회중이 함께 지휘자의 인도에 따라 부르는 순서로 마련됐다.

마지막으로 오늘 찬양은 할렐루야찬양대의 '왕의 왕' (조셉 클로키 곡) 합창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다음 주 설립8주년 및 추수감사 성찬식 · 감사예배 · 임직식

감사예배로 드리는 다음 주일 I · II · III부 예배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하며 감사헌금을 드리는 순서를 갖는다. 교회학교에서는 부서별로 감사와 축하의 시간을 갖는다.

또한 찬양예배 시간에는 장로 · 집사 · 권사 임직식이 있다.

임직식에는 선물이나 증정하는 순서를 모두 생략하고 참가하는 성도 모두가 감사헌금을 드리는 순서를 갖는다.

제 1 · 2권사회 총회 24일(수) I부 예배 후

우리 교회 제 1권사회(회장 이옥녀)와 제 2권사회(회장 이영자) 총회가 24일(수) I부 예배 후 403호실에서 열린다. 이번에 열리는 총회에서는 임원 교체 및 새 천년을 위한 도약의 기틀을 짜게 된다.

'99사명자대회 이번주 마지막 행진

지난 10월 10일(주일) 발대식을 갖고 시작한 '99사명자대회가 다음 주일 교회설립일을 앞두고 이번주 마지막 행진을 하게 된다. 사명자대회는 교회설립전 50일 간 국가와 민족, 교회를 위해 연속으로 기도하고 전도에 힘쓰는 운동이다.

- ▶특별새벽기도회: 새벽5시부터, 1층 예배실
- ▶50일 연속기도회: 2층 예배실
- ▶금요기도회(19일)
 - 주력교구 및 부서: 11 · 12교구, 루디아전도회, 중등부, 고등부, 스테반회
- ▶노방전도
 - 교구 · 교회학교별 노방전도: 21일(주일) 예배 후 교회 · 강남역 주변
 - 병원전도(대학부, 청년부): 주간에 계속
 - 등산전도: 27일(토) 청계산
- ▶태신자전도: 문서전도, 심방전도, 일대일 책임전도 결실, 등록한 성도와의 교제
- ▶다락방 배기운동: 가족 · 이웃 · 친지 전도
- ▶가족초청전도: 한가족 한교회 운동
- ▶잃은 양 찾기 운동:
 - 잃은양 초청: 28일(주일)
 - 잃은양 실패 파와 · 보고 및 다락방별 합심기도, 친분 가진 성도로 구성하여 심방

새천년 남선교회 · 여전도회 출범

특별새벽기도회 주력부대로 사명 재확인

명칭	해당연령(출생연도)	회장	부회장	주력일
빌립	30 - 39세(1961~1970년생)	오승민	김영구	22일(월)
안드레	40 - 44세(1956~1960년생)	곽동희	송인권	23일(화)
베드로	45 - 49세(1951~1955년생)	김성준	최양진	24일(수)
바울	50 - 54세(1946~1950년생)	오유식	손병석	25일(목)
엘리아	55 - 59세(1941~1945년생)	나종연	조용식	26일(금)
모세	60 - 64세(1936~1940년생)	박두영	안찬휘	27일(토)
아브라함	65세 이상(1935~)	임광식	김진호	27일(토)

▲남선교회

▼여전도회

명칭	해당연령(출생연도)	회장	부회장	주력일
도르가	30 - 39세(1961~1970년생)	제오복	김영란	22일(월)
루디아	40 - 44세(1956~1960년생)	박미혜	김신영	23일(화)
비희	45 - 49세(1951~1955년생)	김상옥	이영자	24일(수)
마리아	50 - 54세(1946~1950년생)	이은옥	황정임	25일(목)
에스더	55 - 59세(1941~1945년생)	손재경	이은희	26일(금)
한나	60 - 64세(1936~1940년생)	김연옥	이순례	27일(토)
사라	65세 이상(1935~)	백영희	김경희	27일(토)

새천년을 맞이하기 위해 개편된 2000년도 남선교회와 여전도회가 출범한다. 남선교회와 여전도회는 17일(수) I · II부 예배 후 각 선교회 · 전도회별 총회를 갖고 새로 임원을 구성했다. 이번에 새로 구성된 남선교회와 여전도회는 연령별로 각기 7개의 선교회와 전도회로 구성됐다. 남선교회와 여전도회는 이번주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에 각각 하루씩 주력부대로 참석하여 내년 활동에서의 헌신을 다짐하게 된다.<표참조>

이사야 강해

버림받은 백성

이사야 30장 8 - 17절

애굽과 계속하여 야합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종 이사야는 계속 경고를 합니다.

1. 선지자의 지속적인 경고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앗수르가 침략을 한다고 해서 애굽으로 가서 야합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패역한 행위이므로 이 일을 시급히 중단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경고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점점 더 애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와 같이 패역한 유다 백성들의 행위에 대하여 선지자에게 큰 거울 모양으로 된 서판에 글씨를 써서 온 백성들이 읽도록 했고 책, 즉 가죽에 써서 두루마리로 보존하여 후대에 유다의 패역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서판에 기록된 내용은 첫째로 유다 백성은 패역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유다 백성은 거짓말을 하고 불순종하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서판에 기록된 내용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한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가감 없이 전합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 곧 정직한 말씀은 뾰족하다고 싫어했고 부드러운 말, 다시 말해서 미끈하고 아첨하는 말을 원했습니다. 또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로 하여금 원칙적이고 바른 길을 버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첩경, 곧 옳은 길을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패역하고 거짓말하며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두고 사도 바울은 그 마음에 거짓을 좋아하고 바른 길을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롬 1:28). 선지자는 이와 같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애굽으로 가지 말 것을 계속 경고를 합니다.

2. 패역한 백성들이 받을 죄값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반역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고집을 부리고 교만하다가 마

침내 그 죄값을 받고 말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하고 압박과 허망한 것을 믿고 의지한 것입니다(12절).

저들이 압박과 허망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할 백성들이 애굽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저들은 애굽으로 갈

다(시 57:1): 이것이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4. 완고한 유대 백성은 기회를 잃고 망했다

애굽은 유대에 약속을 하였으나 환난날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애굽이 원조물자로 준 말을 타고 앗수르로 돌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 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와 그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절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 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족 나의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의 잿대 같겠고 산마루 위의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사 30:8 - 17)



이중운 목사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선물을 가지고 갔는데 이것을 위하여 백성들을 착취하고 압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망이란 무익한 민족을 말합니다. 애굽은 '가만히 앉은 라합'(7절)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자기 백성들은 압박을 하고 허망한 백성을 믿었습니다.

반듯해야 할 담이 불쑥 나와 있다면 그 담은 무너지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누구를 막론하고 순식간에 망하게 됩니다(13절).

토기가 깨지면 무용지물이 될 뿐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집어던진 것같이 하나님은 패역한 유다 백성들을 회복할 수 없도록 폐하신다고 했습니다(14절). 한 나라의 흥망 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3. 유대 백성들에게도 살길은 있었다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받기 전에 유다 백성들에게는 살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고 조용히 처신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15절). 위기를 당할 때일수록 경거망동하지 말고 조용히 처신하며 하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병아리가 어미 닭의 품에 있듯이 조용히 있을 수 있습니

다. 진할 줄 알았는데 애굽이 준 말을 타고 오려 애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또한 유다 백성들이 말을 타고 도망을 하는데 앗수르군이 그들보다 더 빨리 저들을 쫓아왔습니다(16절). 믿었던 애굽으로 인하여 낙심만 하게 되었으니 비참한 일입니다.

17절을 보면 앗수르군 한 사람이 호령을 하면 유대 사람 천 명이 도망을 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믿을 사람이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국 이렇게 망하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완고한 자는 결국 파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신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일입니다. 고집은 또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조용히 처신해야 합니다. 신앙은 마음에 평안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불안과 염려는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해야 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고집을 버리고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제물이 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8번째 교회 생일을 기다리며 ●

그때를 아십니까?

이옥녀 · 노영숙 · 백영희 · 전인화
네 분 권사님께 들어보았습니다.

“예배실 하나 마련하려 한건데...”

1991년 10월 4일 토요일 저녁에 이옥녀 · 노영숙 · 백영희 권사는 우선 예배실을 꾸미기로 합의를 하고 그 당시 미국에 있던 전인화 권사에게 전화를 걸어 빌딩의 한 층을 빌려 쓰기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서울교회가 시작된 논현동 바로 그 빌딩 6층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강대상과 의자, 종 등을 준비해 도착해 보니 박철훈 장로와 오정수 장로가 벌써 오셔서 전자오르간과 마이크를 설치하고 계셨습니다.

10월 6일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자 각 가정에서 가지고 온 방석을 깔고 예배 준비를 마쳤을 때 뜻밖에도 그 시간에 모인 성도는 모두 158명. 모인 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랐습니다. 별로 알리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즉석에서 찬양대원, 안내위원이 조직되었고 눈물의 바다를 이루며 감격의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모인 성도들은 예배 후 임시 총회를 열어 새로 교회를 세우기로 결의하고 이종운 목사를 모실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10월 10일 이종운 목사님이 귀국하셨고 후에 서울교회라는 이름도 붙여졌습니다. 피아노도, 커튼도, 방석도 갖가지 필요한 교회 물품들이 예상치 못했던 손길들에 의해 가장 적절한 시간에 적합한 만큼씩 기적처럼 채워지면서 예배실도 점차 안정되어 갔습니다.

교회는 놀라게 부흥해 갔습니다. 예배실을 한 층만 사용하다가 6개 층을 다 사용해도 모자라 예배를 여러 차례로 나누어 드려야만 했고 1994년 5월엔 지금의 처소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시작 땀 장로 4분, 안수집사 1분, 권사는 불과 20 - 30명으로 시작했지만 일꾼의 수는 점차 증가해 지금은 권사회를 들로 나누어야 할 만큼 커졌습니다.

8년 전을 돌이켜 보면 그때 우리의 방황이 부끄럽기만 하고 감당하기엔 벽찬 감사로 목이 메어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지 예배실 하나 변변히 마련해 보자는 너무도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 교회를 통해 오늘처럼 많은 일을 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종운 목사님께서 안 오시려는 것을 억지로 모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큰 사역을 감당케 하시니 이전보다 더 잘 보필해 드려야겠다는 결심도 새롭게 해옵니다.

새 예배당 시대를 앞두고 우리에게 놀라운 것으로 채우시고 계속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뿐 아니라 무거운 책임감으로 8번째 생일을 기다립니다.

교회와 저는 동갑이에요

김소연(유년부 1학년)

우리 교회가 벌써 8번째 생일을 맞는답니다. 나도 엄마와 아빠의 사랑 속에서 나온 지 8년이 되었으니 저와 서울교회는 동갑이지요. 내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에는 키도 작고 뒤통지 잘 몰랐듯이 아마 교회도 지난 8년 동안 내가 잘 모르는 곳에서부터 내가 아는 곳까지 많이 자랐을 것이예요.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지난 주에 있었던 성경암송대회지요. 시편 119편은 너무 길고 외우기가 힘들었지만 생일을 맞는 서울교회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서 끝까지 참고 외웠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아주 크고 좋은 성전으로 이사를 간다는데 참 기다려져요. 건축 중에 사고도 없고 예쁘게 지어져서 내년에 예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겠지요?

우리 서울교회가 더욱 아름답고 새로워지고 발전하는 것처럼 나 역시도 열심히 운동도 하고 기도도 해서 우리 교회처럼 몸과 신앙이 쑥쑥 자라고 많은 친구들도 사귀고 싶어요.

내년에는 정말 예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겠지요. 저도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서울교회에게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동갑친구 서울교회야! 사랑해!

교회설립 8주년 · 추수감사 찬양예배에 붙여

할렐루야!(Hallelujah!)

이태상(집사, 할렐루야찬양대 총무)

교회설립일을 맞이하면서 할렐루야찬양대에서는 금세기 마지막 대합창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렐루야”(라티어 할렐루야)를 주제로 한 곡들을 모아 감사찬양예배를 준비했다.

히브리어 “할렐루야”는 할렐(Hallel), 우(U), 야(Jah)의 합성어이며 할렐은 찬양하라, 우는 너희, 야는 여호와로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명령이다.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된 단어는 시편에 23번, 요한계시록에 4번 나오지만 실제로 성경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는 수없이 많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년 동안 유리하며 방황할 때에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으로 어떤 때는 교창이나 웅창식으로 할렐루야를 불

렀는데 슬픔과 고난의 때에는 힘을 얻고 구원과 승리의 날에 기쁨과 감사의 송가로 불렀으며 매절기의 의식에서 하나님의 구속과 약속에 대한 확신과 소망으로 불렀다. 시편에서도 그와 같은 예를 찾아볼 수 있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마치면서도 불렀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또한 계시록 19장에서는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할렐루야 합창이 우리를 압도하는 바 하나님 면전에서 하늘의 커다란 무리들과 천사들, 이십사 장로와 네 생물들, 하늘에 집결한 모든 무리들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대하여, 사랑과 정절의 변절자와 거짓된 음녀교회의 형벌에 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천국잔치가 있을 것

을 소망하며 부르는 할렐루야 대합창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할렐루야를 주제로 한 곡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에 따라, 하나님만을 위하여, 삼상위하나님께만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활기 있고 장엄하고 당당한 곡들이며 기쁨과 감사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다.

이번에 준비한 찬양곡들도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하다가 점점 빨라지며 여러게 시작하여 차츰 강해지고 어떤 곡은 같은 음이 반복되면서 앞으로 전진해가는 느낌을 갖게 되고 또 어떤 곡은 반음씩 변화하는 화음이 상승됨에 따라 마음과 영을 고양시켜 클라이막스에 이르러 한 목소리(unison)가 됨으로서 지상과 천상,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됨을 나타내게 하는 멋진 선율로 구성되어 있다.

1999년 11월 21일 오후 5시.

모두는 하나님 면전에서 할렐루야와 ‘아멘’을 화답하므로 함께 영광을 돌리자.

나를 일꾼 삼으신 주님 앞에서

보다 낮은 자세로

신순우(집사, 4교구)

초등학교 시절 성탄 선물을 받으러 교회 문턱을 처음 밟았을 때부터 치면 반백년에 가까운 장구한 세월(물론 절반 이상의 공백기간이 있었지만)이 지난 이제 집사 안수를 받게 되니 감회가 깊습니다.

철저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일가 친척 중 기독교인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환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혼자 신앙생활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회에서는 감투쓰기를 즐겨했고, 30년 가까운 공직 생활 중 체제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있었지만 신앙생활은 좀 편하게 하고 싶어 교회에서는 평신도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서리집사로 임명 받았을 때에도 약간 부담스럽기는 했으나 인수집사 임직을 받게 되니 부담감이 더욱 커 집니다.

사회에서는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목표달성이 가능했지만 하늘나라의 청지기는 인간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디모데전서 3장 8-10절의 말씀

을 따라 집사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및 개척교회 지원, 장애인 및 불우이웃돕기 등 선교와 구제 사업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주와 함께 걸으리

김성실(청년부, 신임 부회장)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움직이는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말씀, 한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청년기도회, 사랑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좋은 지체들...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새로 오는 날들에 중으로 순종하기 원하시는 새로운 일감까지 맡겨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청년부의 임원이 되어 아직은 이 복에 겨워 어리둥절하지만 어느 찬양의 내용이 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여 그 내용을 적습니다.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합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날 불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 함께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가 되도록 기도하고 중

성하겠습니다. 좋은 밭에서 일할 수 있는 복이 얼마나 기쁘지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에 기대되는 앞날입니다.

■ 동정 ■

- * 김시환·김정란 집사 가정에서는 1층 예배당에 벽시계 2개를 헌물했다.
- * 이남호 장로·여옥기 권사는 식당에 쌀 2가마를 기증했다.
- * 이번주 식사는 이보우·서옥덕 집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 * 이보우 집사(4교구)는 22일(월) 동서실업(주) 대표이사로 취임한다.

■ 이사 ■

- * 이종운 목사·홍순복 사모, 대치동 미하빌라로(☎ 539-3990).
- * 박성현·김은숙 집사, 강서구 염창동 현대아파트로(☎ 3664-1347).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을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병상에서 일으켜 주신 나의 하나님

양태영(권사, 3교구)

복사꽃 향기로운 삼사월도 꿈 속에서 지나
 신록도 아름다운 오뉴월도 어느덧 지나고
 녹음이 짙어가는 칠월월도 고통 중에
 오곡백과 무르익는 한가위 구월도
 뜬구름 속에 두둥실 보내고
 담도수술로 병상에서
 쉬게 하신 나의 하나님

서울교회 흥해작전 기간 중에
 새벽기도의 메아리도
 소망부 권사님들의 울부짖는 기도 소리도

구역 가족들의 눈물의 찬미와 기도도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숨은 기도가
 하늘의 천부님께 사랑줄로 이어 달아
 재생의 기쁨을 주신 목자이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름도 빛도 없는 황혼의 노구를
 두손모아 두 무릎 꿇고 은밀한 기도로
 기다리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임마누엘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유유히 흐르는 한강물을 바라보며
 부지런히 출퇴근하는 수많은 차들의 오감도
 철교 위를 달리는 전철차의 움직임도
 웅장하게 서 있는 첨단 빌딩의 용태들이
 나의 쾌유를 재촉하는듯
 석양의 붉은 노을에
 더욱 찬란하여라

새 천년을 바라보는
 99년 추수감사절에
 새 성전에 올라가는 철기둥을 바라보며
 두손모아 올리는 눈물의 기도들이
 남북이 하나되어 복음화되는
 빛나는 새 아침을 기원하노라!
 아멘 (중앙병원에서)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추수감사절과 교회설립기념일을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2. 사명자대회와 군선교를 위한 비전2020운동을 위해
3. 남선교회와 여전도회 임원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예 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 모 예 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 회	오후 9시
새 벽 기도 회	매일 새벽 5시30분

† 교외약도

